

학제에 따른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비교

김창희¹, 김정희¹, 홍송희^{2*}
¹충청대학 치위생과, ²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Comparison of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Chang-Hee Kim¹, Jung-Hee Kim¹ and Song-Hee Hong^{2*}

¹Dept. of Dental Hygiene, Chungcheong University

²Dept. of Heal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3년제, 4년제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제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을 비교하여 향후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충청지역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결론을 얻었다. 1. 학제별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년제에서는 1학년(2.73)이, 4년제에서는 3학년(2.67)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업성은 3년제에서는 1학년(3.34), 4년제에서는 4학년(3.29)이 가장 높았다. 2.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년제(2.78), 4년제(2.75)에서 '높은 급여'가 가장 높았으며($p<.01$), 전문직업성은 3년제에서는 '적성', '평생직업'(3.44)이, 4년제에서는 '평생직업'(3.29)이 가장 높았다($p<.01$). 3. 학제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결과로 3년제와 4년제에서 전문직업성이 진로정체감보다 점수가 높았고, 학제에 따른 입학만족도, 전공 선택의 비교에서는 3년제가 4년제보다 진로정체감이나 전문직업성이 평균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년제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 항목의 점수가 낮았고, 4년제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 항목의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학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자아증진 프로그램 및 진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of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an educational system(three-year course and four-year course). In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 of 579 dental hygiene students in Chungcheong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SPSS WIN 12.0 progra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In regard to career identity by educational system and academic year, the freshmen(2.73) had the best career identity in the three-year course and the juniors(2.67) excelled the others in the four-year course. In terms of professionalism, the freshmen(3.34) were most excellent in the three-year course, and the seniors(3.29) were the best in the four-year course. 2. As to career identity by motivation of choosing the major, the students who have chosen the major in hopes of being well paid had the best career identity both in the three-year course(2.78) and four-year course(2.75). In terms of professionalism, they who have chosen the major in consideration of their own attitude and for the purpose of getting a lifelong occupation(3.44) were the best in the three-year course, and the students who wanted to get a lifelong job(3.29) were most excellent in the four-year course($p<.01$). 3. The educational system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to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Key Words : Career Identity, Dental Hygiene Students, Professionalism

*교신저자 : 홍송희(heesem@paran.com)

접수일 10년 11월 09일

수정일 10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11년 01월 13일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행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인간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며 자아실현을 이루어낸다. 직업 없이는 사회활동이 지극히 제한되고, 사회적 기여를 달성하기도 힘들다[1]. 직업가치는 문화·사회 그리고 인성의 영향을 받아 개발되며 [2,3], 전공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org[1]는 직업선택 과정에서 직업가치 역할을 설명하면서 어떤 일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가치 뿐 아니라 그 일이 제공하는 보상이 개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직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후기 청소년기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명확한 인생목표를 가지고 확신에 찬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4,5] 다양한 진로분야에 대한 지식획득을 위한 환경적 탐색과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기 탐색 등 활발한 진로탐색활동이 필요하다[6].

또한, 진로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 직업을 가지기 전이나, 가진 후에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주제이다. 특히, 대학시절은 그동안의 어느 시절보다도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이며,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진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7].

일반적으로 치위생(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타 전공에 비해 이미 직업적 선택을 하고 들어온 상태이고, 비교적 취업률이 높아서 학과를 선택하고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치위생 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다[8].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는 향후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이 높다면, 치위생 전문직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8].

진로정체감이란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신 확신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느냐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고, 환경적인 모호함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도 관련이 깊다[9].

치위생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기 확신과 관련이 있는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적응 및 적합한 결정을 위한 수단이 되므로[10] 직업선택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 치위생(학)과 학생은 이미 직업을 선택하고 입학한 학생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이나 진로정체감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1].

또한, 치위생 업무에서 업무수행과 직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직업성도 요구된다.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이란 전문직 또는 전문직업인을 특징짓는 행위·목표 또는 질을 말한다[12]. 치과위생사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승인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전문직으로 하여금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하는 배경이 되므로 직업 집단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전문직업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13].

전문직업성은 전문직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전문직의 구성요소인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의 추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인들이 어떠한 전문직업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직으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14].

보건 의료 분야의 진로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치위생(학)과는 1965년 3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기술수련원에서 교육이 시작되었고, 1970년 전문학교 제도가 신설되면서 1977년 전문교육기관인 광주, 대구, 신구,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2년 과정의 신설학과가 신설되었으며[15], 2002년부터는 4년제 대학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가 신설되면서 치위생 관련학과의 수량적인 증가가 가속화 되었다. 2010년 10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4년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는 21개교, 3년제 대학의 치위생과는 58개교 총 79개교이다. 이렇게 수량적인 증가가 가속화되고 4년제 치위생학과가 신설된 지 8년이 지난 현재 치위생학 분야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향후 전문인으로서 자긍심과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먼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3년제와 4년제

의 학제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치과위생사의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4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3, 4년제가 고루 분포된 충청지역을 선정하여 3년제와 4년제 대학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의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등기우편으로 회수한 결과 총 600부의 설문 가운데 응답이 부적절한 21부를 제외한 579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된 579부는 3년제 재학생 240명과 4년제 재학생 339명으로 조사되었다.

2.2 연구도구 및 방법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문지의 구성은 Holland, Diger와 Power[9]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척도인 진로정체감 검사를 Kim[16]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치위생(학)과 대학생에 맞게 25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im[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565였다.

전문직업성에 대한 설문지의 구성은 Hall[17]이 개발하고, Snizek[18]가 수정한 Hall's Professional Inventory를 한글로 표준화한 도구를 백[19]이 재인용한 설문을 치위생(학)과 학생의 실정에 맞추어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6이었고, 백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73이었다.

문항별 측정은 1-2-3-4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하였으며, 진로정체감, 전문직업성에 관한 문항을 평균값으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평균값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전문직업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학제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평균분석, t-test와 ANOVA로

검정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3년제 240명(41.5%), 4년제 339명(58.5%)이었고, 1학년 185명(32.0%), 2학년 176명(30.4%), 3학년 120명(20.7%), 4학년 98명(16.9%)이었다. 치위생과 입학만족도는 82.6%이었고, 치위생과 선택 동기는 높은 취업률(68.7%),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11.6%), 평생 직업이 될 것 같아서(7.9%) 순으로 조사되었다.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은 병원 및 종합병원(58.4%)이 가장 높았고,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실(20.9%), 대학원 진학(9.3%), 의원(6.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학제	3년제	240(41.5)
	4년제	339(58.5)
학년	1학년	185(32.0)
	2학년	176(30.4)
	3학년	120(20.7)
	4학년	98(16.9)
치위생과 입학만족	만족	478(82.6)
	불만족	101(17.4)
치위생과 선택한 동기	높은 취업률	398(68.7)
	적성	67(11.6)
	평생 직업	46(7.9)
	높은 급여	20(3.5)
	부모님 권유	17(2.9)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	기타	31(5.4)
	병원 및 종합병원	338(58.4)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실	121(20.9)
	대학원 진학	54(9.3)
	의원	38(6.6)
합	기타	28(4.8)
	계	579(100.0)

3.2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

학제별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년제(2.67점)가 4년제(2.64점)보다 높아 진로에 대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년제에서는 1학년(2.73점), 4년제에서는 3학년(2.67점)이 진로정체감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문직업성은 3년제(3.31점)가 4년제(3.26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3년제에서는 1학년(3.34점)이, 4년제에서는 4학년(3.29점)이 전문직업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표 2] 학제별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

학제	학년	N	진로정체감 (p=0.66)	전문직업성 (p=0.73)
3년제	1	99	2.73±.21	3.34±.35
	2	80	2.66±.20	3.32±.34
	3	61	2.61±.23	3.26±.31
	합계	240	2.67±.22	3.31±.34
4년제	1	86	2.63±.19	3.26±.39
	2	96	2.62±.21	3.23±.37
	3	59	2.67±.23	3.26±.32
	4	98	2.65±.22	3.29±.36
합계	339	2.64±.21	3.26±.36	

3.3 입학만족도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

입학만족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년제에서 만족하는 학생은 2.68점이었고, 만족하지 않는 학생은 2.61점이었으며, 4년제에서는 만족하는 학생은 2.66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은 2.56점으로 조사되어 3년제 학생이 4년제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의 점수가 더 높았고, 3년제, 4년제 학생 모두 입학에 만족하는 학생이 진로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입학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치위생과 입학에 만족하는 학생이 3.33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3.15점이었고, 4년제 학생의 전문직업성은 치위생과 입학에 만족하는 학생이 3.27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3.19점으로 조사되었다. 3년제 학생이 치위생과 입학에 만족하는 학생에서 전문직업성 점수가 더 높았고, 전문직업관이 잘 확립되어 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1) [표3].

[표 3] 입학만족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

구분	진로정체감			전문직업성		
	N	Mean±SD	F값(p)	N	Mean±SD	F값(p)
3년제	만족	208	2.68±.22	208	3.33±.33	4.384 (.005)
	불만족	32	2.61±.21	32	3.15±.36	
4년제	만족	270	2.66±.21	270	3.27±.36	
	불만족	69	2.56±.22	69	3.19±.37	
합계	579	2.65±.22		579	3.28±.35	

3.4 전공선택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관

전공선택 동기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높은 급여’로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이 3년제 2.78점, 4년제 2.75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3년제 학생들이 4년제 학생들보다 진로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전공선택 동기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3년제 학생에서 ‘적성’과 ‘평생 직업’이 3.44점으로 응답하여 점수가 가장 높았고, 4년제에서는 평생 직업(3.29)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점수가 가장 높아 전문직업관 확립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표 4].

[표 4] 전공선택 동기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 직업성

구분	진로정체감			전문 직업성			
	N	Mean±SD	F값(p)	N	Mean±SD	F값(p)	
3년제	높은 취업률	167	2.66±.22	167	3.26±.33	2.717 (.002)	
	높은 급여	7	2.78±.32	7	3.35±.41		
	적성	26	2.75±.18	26	3.44±.26		
	평생 직업	28	2.71±.17	28	3.44±.33		
	부모님 권유	5	2.50±.09	5	3.18±.27		
	기타	7	2.60±.23	7	3.42±.28		
	높은 취업률	231	2.62±.20	2.444 (.006)	231		3.28±.35
4년제	높은 급여	13	2.75±.16	13	2.93±.45		
	적성	41	2.71±.21	41	3.28±.39		
	평생 직업	18	2.66±.19	18	3.29±.33		
	부모님 권유	12	2.59±.25	12	3.15±.47		
	기타	24	2.68±.30	24	3.20±.27		
	합계	579	2.65±.21		579		3.28±.35

3.5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관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2.75점)이 진로정체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실(2.69

점), 병원 및 종합병원(2.66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4년제 학생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2.73점)이 진로정체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타’(2.69점), 병원 및 종합병원(2.63점),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실(2.62점) 순으로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년제와 4년제 학생 간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에 따라서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에 따른 전문직업성에서 3년제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3.46점) 점수가 가장 높았고, 4년제 학생은 기타(3.33점)가 가장 높았다. 3년제와 4년제 간에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에 따라서 전문직업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표 5]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

구 분	진로정체감			전문직업성		
	N	Mean±SD	F값(p)	N	Mean±SD	F값(p)
의원	23	2.63±.23		23	3.43±.29	
병원, 종합병원	150	2.66±.21		150	3.30±.34	
3년제 보건소, 학교구강보건실	49	2.69±.22		49	3.26±.31	
대학원	11	2.75±.16		11	3.46±.34	
기타	7	2.74±.13		7	3.27±.34	
의원	15	2.45±.30	3.145 (.001)	15	3.16±.30	1.236 (.270)
병원, 종합병원	188	2.63±.20		188	3.26±.38	
4년제 보건소, 학교구강보건실	72	2.62±.19		72	3.25±.37	
대학원	43	2.73±.23		43	3.25±.31	
기타	21	2.69±.20		21	3.33±.31	
합계	579	2.65±.21		579	3.28±.35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70, p<.01$) [표 6].

[표 6]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상관관계

	진로정체감 (p)
전문직업성	.170 **

** $p < .01$

4. 고 찰

현대사회의 새로운 질병양상 및 건강관리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권리식 향상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변화하여 건강서비스의 전문화된 간호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20]. 이러한 요구 속에서도 치과위생사의 높은 이직률은 치위생계의 질을 저하하고 남아 있는 치과위생사의 부족문제로 치과병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한 치위생의 본질과 철학을 중요시 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전문인다운 전문치과위생사로서 스스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찾아가야 한다[21].

치과위생사들이 전문직업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치위생 업무가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는 자의식을 느끼며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역할갈등으로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되고, 전문인으로서의 위축감으로 나타나 치위생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22].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들이 긍정적이고 확고한 전문직업관을 갖고 있을 때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양질의 진료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결과로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스스로도 만족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위치를 확립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므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23].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가치관이나 전문직관이 확고히 다져지기도 전에 치과위생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면[24] 치과위생사가 되어서도 현실충격을 해소하지 못하여 전문직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될 수 있다. 확고한 이념과 목표의 치과위생사의 활동을 위해서는 치위생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치위생(학)과 학생의 바람직한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에서 치위생과가 개설된 지 33년, 4년제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지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이 높다면 확고한 직업관으로 이직률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어 3, 4년제 학제에 따른 치위생과 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치위생학의 3, 4년제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방향의 설정에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년제 학생 240명(41.5%), 4년제 학생 339명(58.5%)였고, 입학만족도는 만족이 82.6%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권[25]의 간호학과 학생의 연구에서도 만족도가 92.3%로 두 학과 모두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치위생과, 간호과가 높은 취업률과 직업에 대

한 안정성이 높은 결과로 보여진다.

전공 선택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68.7%로 가장 높았고,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은 ‘병원’, ‘종합병원’이 58.4%,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실’이 20.9%로 대체적으로 안정된 취업기관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조[8]의 간호학과 학생의 연구에서도 ‘종합병원’ 59.9%, ‘외국간호사’ 19.5%, ‘공무원’ 16.3%와 권[25]의 연구에서도 ‘종합병원’ 76.3%로 치위생과, 간호학과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학제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년제에서는 1학년이 2.73점으로 가장 높았고, 4년제에서는 3학년이 2.67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문직업성은 3년제에서 1학년이 3.34점, 4년제에서는 4학년이 3.2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학제에 따라서 3년제가 진로정체감, 전문직업성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나 3년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은 결과는 3년간 병원실습과 짝 짜여진 교육과정의 부담과 더불어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다른 직종과의 차별성 결여로 만족도가 낮고, 4년제에서는 병원실습 이외에 다양한 실습경험 및 심도 있는 학교수업을 통한 교육의 실시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입학만족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은 3년제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8]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선택 및 직업선택에서 자기 확신이 뚜렷하고 동기가 뚜렷한 학생일수록 높은 진로정체감을 갖게 되었고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진로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 4년제에서 ‘높은 급여’가 2.78점, 2.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직업성에서는 3년제에서 ‘적성’, ‘평생 직업’이 3.44점, 4년제에서는 ‘평생 직업’이 3.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과의 선택이 다른 직종보다는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급여가 높다고 판단하여 진로를 선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문직업성에서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이 환자에게 진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제공되어야 하는 직업이므로 적성에 맞고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학생이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대학원’이 3, 4년제 모두 2.75점, 2.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업성은 3년제에서는 ‘대학원’이 3.46점, 4년제에서는 ‘기타’가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병·의원에 취업하고자하는 학생보다는 대학원에 진학하

고자 하는 학생이 치위생학이라는 학문분야에 대해 다른 학생보다는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 3년제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정체감, 전문직업성이 낮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 확립을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4년제에서는 3년제보다 낮은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3, 4년제의 직업에 관련된 차별화된 교육이 시행되고 신입생 때부터 자아증진 프로그램 및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3, 4년제가 전국에서 충청지역에 가장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충청지역에 한정되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을 3, 4년제로 분류하여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을 비교함으로써 학제에 따른 직업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학제에 따른 진로의 다양한 영향요인과 관련성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5. 요약

본 연구는 3년제, 4년제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학제에 따른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을 비교하고자 충청지역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제별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년제 2.67점, 4년제 2.64점이었고, 3년제는 1학년이, 4년제는 3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업성은 3년제 3.31점, 4년제 3.26점이었고, 3년제는 1학년이, 4년제는 4학년이 가장 높았다.
2. 입학만족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년제에서 만족이 2.68점으로 나타났고, 4년제에서는 만족이 2.66점으로 나타났고($p < .001$). 전문직업성은 3년제에서 만족이 3.33점으로 나타났고, 4년제에서는 만족이 3.27점으로 나타났고($p < .01$).
3.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년제, 4년제 모두 ‘높은 급여’가 2.78점, 2.75점으로 가장 높았고($p < .01$), 전문직업성은 3년제에서 ‘적성’, ‘평생 직업’이 3.44점, 4년제에서 ‘평생 직업’이 3.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p < .01$).

4.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3, 4년제 모두 ‘대학원’이 2.75점, 2.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p<.001), 전문직업성은 3년제에서 ‘대학원’이 3.46점, 4년제에서는 ‘기타’가 3.33점으로 가장 높았다.

본 결과로 3년제와 4년제에서 전문직업성이 진로정체감보다 점수가 높았고, 학제에 따른 입학만족도, 전공 선택의 비교에서는 3년제가 4년제보다 진로정체감이나 전문직업성이 평균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3년제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 항목의 점수가 낮았고, 4년제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 항목의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학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자아증진 프로그램 및 진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1] Borg, Rosanne, "Factors determining career choice", *European Education*. 28(2), pp. 6-15, 1996.
- [2] Dose, J. J., "Work Values: An integrative framework and illustrative application to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0, pp. 219-240, 1997.
- [3] Wood, D. A., "The relative between work values and the perception of the work sett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5, pp. 189-193, 1981.
- [4] 강연우, 김이레, 장윤정, "2006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11권, pp. 1-80, 2006.
- [5] 류진혜,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한양상담센터*. 2007.
- [6] 이현주, "대학생의 성별 및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진로개방성, 진로탐색활동, 진로정체감 차이", *교육학연구*. 제46권 1호, pp. 77-99, 2008.
- [7] 천의영, 남영희, 권현주,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교육경험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보건행정학회지*. 제19권 3호, pp. 166-182, 2009.
- [8] 조희, 이규영,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 20권 2호, pp. 163-173, 2006.
- [9] Holland, J. L., & Diger, D. C., & Power, P. G, "My vocation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1980.
- [10] Kim, H. S.,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as curriculum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rs & career", *J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 pp. 35-46, 2007.
- [11] Cho, H., & Lee, G. Y., "Self esteem and canc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ub Health Nur*. 20(2), pp. 163-173, 2006.
- [12] Webster Dictionary. Professionalism. Retrieved May 24, 2004, from <http://www.m-w.com/cgi-bin/dictionary?va=professionalism>, 2004.
- [13] 송진욱, "한의사의 전문직업성 연구",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원*. 제7권 1호, pp.53-62, 1994.
- [14] 기은희,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성",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5] 이은숙 외. "치위생학개론", *고문사*. p.18, 2003년.
- [16] Kim, B. W.,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University, 1997.
- [17] Hall, R. H., "Some organizational considerations in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al relationship", *Am Sci Q*. 22, pp. 461-478, 1967.
- [18] Snizek, W. E., "Hall's Professionalism Scale: An empirical reassessment", *Am Sociol Rev*. 3, pp.104-114, 1972.
- [19] 백희정, Kim-Godwin, Yeoun Soo, "간호의 전문직업성 척도개발을 위한 Hall의 전문직업성 척도 번역 및 동등성 비교", *간호행정학회지*. 제13권 4호, pp.509-515, 2007.
- [20] Choo, H. S., "A study on clinical nurses' professionalism and the factors affecting 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21] 송인자, "간호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비교 분석", *대한간호*. 제32권 2호, pp.51-62, 1993.
- [22] 김귀분, 김혜숙, 이경호, "간호사의 업무갈등", *대한간호학회지*. 제31권 3호, pp.492-505, 2001.
- [23] 권영미, 윤은자,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3권 3호, pp.285-292, 2007.
- [24] 박미영, 김순이,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체험 연구", *한국간호학회지*. 제6권 1호, pp.23-35, 2000.
- [25] 권경남, 최은희,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4권 1호, pp.19-28, 2010.

김 창 희(Chang-Hee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행정학 석사)
- 2006년 2월 : 경희대학교 의학과(의학박사)
- 2001년 8월 ~ 2006년 2월 : 신성대학 치위생과 조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충청대학 치위생과 조교수

<관심분야>
치위생, 보건

김 정 희(Jung-Hee Kim)

[정회원]



- 2004년 8월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보건행정학 석사)
- 2010년 10월 ~ 현재 : 충청대학 치위생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치위생, 보건

홍 송 희(Song-Hee Hong)

[정회원]



- 2004년 2월 : 대전대학교 철학과 (문학석사)
- 2004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치위생, 보건